

# 아르헨티나 프리바도… 가족자켓을 입은 말백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8

아르헨티나의 와인너리 보데가 호르헤 루비오가 2017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와인샵에서 시음회를 했을 때다. 한 여성이 문을 열고 걸어들어오는데 다들 너무나 놀라고 말았다. 걸치고 있는 가족자켓이 다름아닌 대표 와인 '프리바도 말백'의 라벨로 만들어서다. 특유의 가족 라벨을 패치워크 방식으로 이어 붙인 것. 무려 400명이 넘는 와인의 라벨이 들어갔다. 보데가 호르헤 루비오가 수출을 시작한 게 2007년이니 어렵잡아도 이 여성은 매년 40병, 매달 서너병의 프리바도 말백을 꾸준히 마셨단 얘기가. 프리바도를 알아가는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랜 시간 질리지 않고 일상 속에서 즐겼다는 것. 믿고 마신다는 아르헨티나 말백이지만 프리바도는 묵직함보다는 가족 자켓 처럼 멋스럽고 편한 말백이다.

보데가 호르헤 루비오는 2003년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에 자리잡은 와인너리다. 멘도사는 멘도사인데 우리가 기준에 알던 멘도사가 아니다. 그간 한국에 알려진 멘도사 말백은 안데스 기슭과 맞닿은 북서부 지역이 대부분이다. 반면 보데가스 호르헤 루비오는 멘도사의 최남단, 남부 오아시스(Oasis Sur)다. 반사막같은 기후인 멘도사는 안데스에서 녹아내린 물이 오아시스를 만들고, 포도나



왼쪽부터 프리바도 샤도네이, 프리미아도 말백, 프리바도 말백. /안상미 기자

무는 이 빙하수를 마시고 자란다. 빙하수가 흘러 생긴 아투엘(atuel) 강과 디아만테(diamante) 강이 만들어낸 일대 지대가 바로 남부 오아시스다. 후발 주자이다 보니 법정 원산지명은 아니지만 지금은 멘도사 남부를 대표하는 원산지명처럼 쓰이고 있다. 프리바도 역시 라벨 전면에 남부 오아시스를 기재하고 있다.

설립자인 호르헤 알베르토 루비오는 처



한 덴마크 여성이 프리바도 와인의 가족 라벨 400개를 패치워크 방식으로 이어붙여 제작한 자켓을 입고 있다. /보데가 호르헤 루비오

음부터 남부 테루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호르헤는 “거친 대자연과 서늘한 바람이 맞닿은 남부 오아시스는 아르헨티나에서도 가장 차별화된 테루아로 포도에 강렬한 생명력과 깊은 아로마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남부라는 단어만 보면 와인 애호가들 입장에선 고개를 가웃거릴 수밖에 없다. 일교차가 큰 북부 산기슭보다 분명 낮은 지대에서 평균집하게

익어버린 벌크와 인용 포도가 떠오르니 말이다. 하나씩 팩트체크를 해보자. 상대적



한 덴마크 여성이 프리바도 와인의 가족 라벨 400개를 패치워크 방식으로 이어붙여 제작한 자켓을 입고 있다. /보데가 호르헤 루비오

으로 낮은 지대인 것은 맞다. 그런데 해발 고도 1000미터 안팎인 북서부보다 낫다는 것이지 프리바도의 포도밭이 위치한 헤네랄 알베아르(General Alvear) 지역은 기본적으로 400미터 이상이다.

여기에 일조시간은 연간 2200시간에 달하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다. 고도 때문이 아니라 밤이 되면 고지대의 차가운 공기가 지형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냉기배수가 일어난다. 최남단인데 서리와 우박 피해를 막기 위한 미세 스프링클러와 우박 방지망이 마련된 것도 그래서다.

토양은 염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충적토다. 석회질 토양에 자갈이 많은 하층토로 이뤄졌다.

프리바도(Privado)는 호르헤가 선보인 두 번째 라인이다. 영어로 프라이빗(private)이란 뜻으로 생산자와 테루아의 개성을 좀 더 담고자 했다.

유명세를 탄 가족라벨을 선보인 것도 프리바도 부터다. 청바지를 유독 좋아했던 호르헤가 허리 뒷춤의 가족라벨에 착안해 와인 라벨로 만들었다.

‘프리바도 말백’은 잘 익은 과실의 향과 맛은 딱 아르헨티나 말백인데 산도가 워낙 좋다보니 균형감이 좋고, 마시기도 편하다. 타닌은 순하고, 신세계 레드 와인 특유의 부담감이 전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웬만한 화이트 와인도 알코올 도수가 13도를 넘는데 프리바도 말백도 13도 밖에 안된다.

좋은 기후 속에서 레드와인은 여러여러한 말백이 나왔다면 화이트와인은 강단있는 샤도네이이다.

‘프리바도 샤도네이’는 열대와일부러 배와 청사과까지 과실향이 풍성한 가운데 산도로 골격도 잘 잡혔다. 비비노 평점이 무려 4.4에 달한다. 상위 1%(4.5)에 가까운 평가다.

‘프리미아도 말백’은 수상 등 좋은 평가를 받은 3개 빈티지를 섞어 만든다. 프리미아도(Premiado)가 영어로 상을 받았다(award-winning)는 뜻이다.

프리미아도 역시 라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가족 라벨인 것은 똑같다. 프리바도가 단면 부착식이라면 프리미아도는 와인병에 피쳐처럼 둘러져 있다. 모두 수작업으로 한거라 손으로 땀만도 하다. 국내 수입사의 한 관계자는 요 라벨을 잘 탈착해서 동전 지갑으로 만들어 쓴다고 한다. 그럼 다들 가족라벨로 무얼 할지 궁리해보시길.

/smahn1@metroseoul.co.kr



metro

## 히어로 뒤에 숨겨진 ‘엄마’의 반짝이는 청춘을 찾다

### 영화 ‘오케이 마담2’ GV

이철하 감독, 엄마의 정체성에 주목 주·조연 아우르는 디테일한 연출력 액션장면에 더해진 감정선도 인상적 “극장서 마음 편히 즐기는 영화 되길”

지난 19일 서울 CGV 왕십리에서 영화 ‘오케이 마담 2’ 관객과의 대화(GV)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이철하 감독과 주연을 맡은 배우 엄정화 그리고 지원사격에 나선 천만 관객의 거장 김한민 감독이 참석해 푸른 바다처럼 다채롭고 시원한 대답을 내놨다.

### ◆엄마라는 거센 파도 속에 잠시 접어둔 청춘의 설렘

이철하 감독은 이번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울림으로 ‘엄마라는 존재의 자아 찾기’를 꼽았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평범해진 엄마의 일상, 그 수면 아래 잠겨 있던 청춘의 반짝임과 정체성에 주목한다.

영화 속 미영(엄정화)은 호화 크루즈에



지난 19일 저녁 10시 서울 CGV 왕십리점에서 김한민 감독(왼쪽부터), 배우 엄정화, 이철하 감독 등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서 뜻밖의 해프닝을 겪는다. 한 여성이 일상의 무거운 닳을 내리고 스스로 청춘의 뜻을 올리며 삶의 설렘을 회복해 가는 뜨거운 여정이다.

이 감독은 “우리의 어머니들도 한때는 톡톡 튀는 사고뭉치였고 신나게 무대를 누비던 청춘이었다”며 “엄마라는 거친 파도를 건너고 잠시 잊고 살았던 그 시절의 활력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가슴 뭉클한 감정과 내가 진짜 신나는 일들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 ◆주·조연의 앙상블로 이뤄낸 촘촘한 스토리

이날 관객의 시선으로 대담에 나선 김한민 감독은 영화의 연출적 결실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김 감독은 “주연의 그늘에 가려지기 쉬운 주변 캐릭터들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결을 살려냈다”며 주·조연을 아우르는 이철하 감독의 디테일한 연출력을 짚었다. 각 출연진들은 저마다의 파도를 타며 코미디와 드라마의 절묘한 균형을 완성했다

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액션 장면에도 갖는 감정선의 개연성도 인상적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김 감독은 “가족애가 액션의 당위성으로 자연스럽게 작용했다”며 “마담의 화려한 뒤에 숨겨진 엄마의 마음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덧붙였다.

###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배우 엄정화의 몰입

배우 엄정화 역시 이번 작품이 지닌 남다른 의미와 현장에서의 추억을 풀어냈다. 1993년 데뷔부터 수많은 히트작을 남겼지만 자신이 주연을 맡은 영화의 속편으로 다시 관객을 찾은 것은 35년 연기 인생에서 처음이다.

그는 “3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내에 무사히 촬영을 마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컸다”며 당시의 중압감을 떠올렸다. 배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운동 도구가 없자 물통을 들고 근력 운동을 하며 몸의 감각을 세웠고 거친 액션 동선을 완벽히 체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였다.

또 기획 단계부터 아이디어를 보태며 영화에 애정을 쏟은 그는 “관객들이 극장

에서 마음 편히 웃고 즐기는 통쾌한 시간을 계속 만들고 싶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영화가 전하는 유쾌함 뒤에는 거친 제작 환경을 극복한 제작진의 피와 땀이 녹아 있다. 감독과 배우, 스태프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서 사력을 다했다. 이철하 감독은 “배를 대여하는 비용이 막대해 아침부터 쉬지 않고 A, B, C팀을 동시 가동해 10시간 이상 연속 촬영을 진행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는 한국 영화 시장을 향한 현실적인 진단도 짚었다. 김한민 감독은 “중급 영화들이 시장에서 단단하게 자리 역할을 해줘야 한국 영화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한다”며 ‘오케이 마담 2’와 같은 작품들의 가치를 강조했다. 대작 중심으로 편중되기보다 다양한 규모의 상업 영화들이 살아남을 때 투자와 제작의 선순환 구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푸른 바다의 통쾌함과 엄마라는 따뜻한 체온 그리고 마담의 당당함을 품은 ‘오케이 마담 2’. 현장에서 증명된 감독의 연출적 집념과 배우들의 열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엄마들을 응원하며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트럼프 “北 핵무기 57기” 논란…‘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우려 심화 /사진 뉴시스

▲코로나 영웅 모더나의 부활…mRNA 암백신에 주가 177% 폭등

▲걸프 산유국, 수출 위한 ‘유조선 확보전’…선박값 2008년 이후 최고

▲젤렌스키, 대통령실 부실장 경질…자금세탁 연루 의혹

▲中, 기준금리 1년물 LPR 3.0% 5년물 3.5% 15개월째 동결

▲美와 교감 나서나…“‘해임’ 우크라이나 前국방, 이르면 내주 방미 검토”